

18세기 조선 유입 清代 瑯琊瓷器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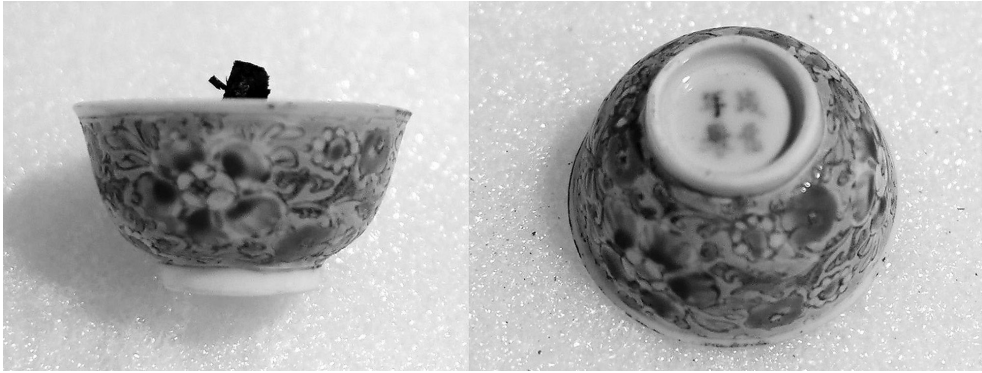
김은경*

- I. 머리말
- II. 18세기 조선에 유입된 법랑자기의 양상과 특징
- III. 18세기 청대 법랑자기의 조선 유입 배경과 과정
- IV. 맺음말

I. 머리말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조선은 康熙, 雍正, 乾隆의 융성기를 맞이하여 청나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여러 방면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특히 이 시기 북학파에 의해 청나라를 인정하고 청나라의 학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바램은 조선 사회의 도자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청나라에서 유행하였던 각병과 편병, 투각과 첩화로 장식된 자기, 채색자기 등은 조선에도 유입되어 사용되거나 혹은 조선의 청화백자로 재해석되어 제작되었다. 그 중 강희제(1662-1722)의 주도하에 개발된 청 황실 御用 자기인 법랑자기 역시 조선에 유입되었다.

* 고려대학교



도 1 <粉彩花卉紋碗>, 淸, 雍正-乾隆, 화협옹주묘 출토

18세기는 조선에 청대 법랑자기가 처음 소개되는 시기로 현재 일부 출토품과 전세품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후기에 제작된 화유옹주묘 출토 <粉彩黃地月季紋瓶>이 있는데, 이는 근래까지 조선에 유입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대 법랑자기 예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사도세자의 누이인 화협옹주(和協翁主, 1752년卒) 묘에서 한 점의 법랑자기가 출토됨으로서 18세기 조선의 법랑자기 사용 정황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도 1).¹ 하지만 문헌기록과 출토유물을 통해 확인되는 18세기 조선에 유입된 법랑자기의 수량이 많지 않은데, 이는 19세기 후기 조선시대 유적 출토품과 고종시기 조선왕실 소용품 등 다수의 법랑자기가 전하는 상황과 사뭇 대비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과거 선학들에 의해 조선에 유입된 청대 법랑자기에 대한 초보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² 18세기 화유옹주묘 출토품과 관련해서는 유입 주제와 과정, 즉 사행단이었던 남편 황인점이 사행무역을 통해 구입해 왔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³ 다만 구체적으로 들여온 법랑자기가 어떤 품종인지, 그 그릇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혹은 구입한 장소나 유통 경로는 어떠한지에

¹ 문화재청 발표에 의하면 화협옹주묘는 2016년 12월 5일부터 남양주 삼패동 산43-19번지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확인되었다고 한다. 옹주묘에서는 御製和協翁主墓誌 지석, 3점의 백자명기가 담긴 석함1개, 청화백자합 10점과 법랑자기 1점, 목제합 3점, 청동거울과 거울집, 목제빗 등이 출토되었다.

² 방병선, 『조선 후기 백자 연구』(일지사, 2000); 방병선,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美術史學研究』 232호(2001.12); 방병선, 『조선 후반기 도자의 대의교섭』,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의 교섭』(예경, 2007); 궁중유물전시관, 『오얏꽃 황실생활유물』(궁중유물전시관, 1997); 국립대구박물관, 『우리문화속의 중국도자기』(국립대구박물관, 2004); 김미경,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淸代 磁器의 影響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³ 방병선, 위의 논문(2001), p. 142;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책, p. 184.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최근 18세기 문헌과 새롭게 확인된 출토유물을 통해 조선 유입 법랑자기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후기 활발한 조·청 문화 교섭 중 발생한 청대 법랑자기의 조선 유입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에 처음 법랑자기 소개되기 시작한 18세기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되, 청대 법랑자기의 생산과 유통 상황을 통해 조선으로의 유입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조선에 유입된 청대 법랑자기의 성격, 그리고 조선으로 유입된 구체적 정황을 고찰함으로써 조·청도자 교류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II. 18세기 조선에 유입된 법랑자기의 양상과 특징

청대의 법랑 자기는 18세기 들어 법랑자기 제조기술의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소비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 청대 최고의 문화상품이었다. 청의 자기문화를 대표했던 법랑 자기는 조선에도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문헌기록과 출토자료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유입 청대 법랑자기와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헌기록과 출토품의 양상

18세기 조선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중국자기들은 각종 문헌을 통해 그 형태와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가령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1759)⁴, 『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1787)를 살펴보면 쓰고 해당 각사로 돌려줘야 할 물품 목록을 적은 「用還秩」중 당사발 2립, 당자완 1개, 당대접 7개, 당사발 1개 등 중국산 자기가 왕실 행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왕실에서의 중국자기 사용은 크게 증가한다. 정조19년(1795) 『承

4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英祖35年(1759), 用還秩, “木瓢子三箇……砂莫子一箇, 砂磁碗三立, 鍾子一箇, 唐砂鉢二立……以上用還.”

5 『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正祖11年(1787), 「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三房儀軌」, 用還, “柳箕一部紅假函一隻 紅木四幅袱二件又三幅袱 三件唐磁碗一箇沙莫子一箇唐大貼七箇唐沙鉢一箇紅紬三幅袱二件維結藍紬一疋尾第一柄 紅紬四幅袱二件手巾布三件玉火爐五坐苧布手巾一件方文里三箇紫硯一面空石五立綿紬手巾一件陶東海一坐陶所羅一坐.”

政院日記』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慈宮인 惠慶宮洪氏의 회갑연에 사용된 기물은 중국 도자가 조선 도자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등장한다.⁶ 총 153종이 언급된 사용자기 중 청대 자기는 112회, 조선 자기는 41회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양의 중국자기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 중국도자 사용의 급증은 조·청 교류가 안정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무엇보다 서유구, 이규경, 박제가, 이희경과 같은 북학파들의 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⁷ 이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자기, 즉 청나라 자기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선인들의 중국 자기에 대한 취향이 고취된 것은 아니지만, 가령 이희경은 오채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름답다고 평함으로써⁸ 적어도 조선후기 빠르게 변모하던 중국자기의 선호도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배경 하에 조선에도 채색자기가 유입되었으며, 앞으로 살펴볼 법랑자기 또한 조선에 유입되어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문헌 속의 중국자기는 唐畫器(畫唐器), 唐沙器, 唐磁器, 畫磁器, 畫器, 畫彩 등 ‘唐’ 혹은 ‘畫’의 글자를 붙여 제작국이나 그림으로 장식되는 그릇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彩花銅沙器⁹, 洋磁瑠瑯¹⁰, 洋磁¹¹ 등 이전 표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자기도 확인된다. 청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법랑자기는 크게 瓷胎畫瑠瑯, 洋彩, 粉彩, 廣彩 등으로 구별되는데,¹² 여기서 청 법랑자기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한 瑠瑯이나 洋磁라는 명칭은 청 황실 소

6 『承政院日記』1746冊, 正祖19年(1795), 6月18日(丁酉), “上詣延禧堂.慈宮周甲誕辰進饌入侍時, 行都承旨黃昇源……乃命鄉唐文奏, 進午饌訖, 宣饌于進饌堂即進饌時, 慈宮饌案八十二器……彩花銅砂器有前大圓盆眞菴一器高一尺, 彩花銅沙器有前中圓盆生梨一器高九寸, 畫唐中樑松柏子一器高六寸…….”

7 도자교섭에 있어 이규경, 박제가 등으로 대표되는 북학파들의 청대 도자에 대한 인식과 이에 파생되는 당시 사회의 도자문화를 다룬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鄭良謨·崔健, 「조선시대 후기 백자의 쇠퇴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현대 미술의 흐름』(일지사, 1988); 장남원, 「朝鮮後期 李圭景의 陶磁認識 - 『五洲衍文長箋散稿』의 「古今瓷窯辨證說」과 「華東陶瓷辨證說」을 중심으로」, 『美術史論壇』第6號(1998.3); 방병선, 앞의 책(2000); 방병선, 「楚亭 朴齊家·繪菴 李喜經의 도자 인식」, 『美術史學研究』第237·238號(2003.9).

8 李喜經, 『雪岫外史』, 純祖5年(1805), “……制度皆異 施以五彩爛成花繡…….”

9 註6 上同.

10 『日省錄』, 正祖10年(1786) 2月28日(壬寅), “十四日通官來言皇上以爲緞匹則每年例有所送在該國未必爲奇故將以文房器玩別有所送係是特恩而當自軍機房親授於臣等云午後臣等入山高水長閣 通官引臣等詣軍機朝房禮部侍郎, 達春出立以黃盤盛玉如意一柄玉器二件磁器四件玻璃器四件硯二方絹箋大小各二卷筆二匣墨二匣洋磁瑠瑯盒四件雕漆盤四件授臣等曰此是皇上自內親揀特送於國王云故臣等祇受仍入班次諸般燈戲舉皆整待適因風勢大作有旨停戲.”

1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七, 入燕記[下], 正祖2年(1778) 5月21日, “二十一日庚辰, 熱, 留館……又買假花四盆, 菊二月桂二盆則洋磁圍以琉璃冬日見之鮮鮮如活花…….”

12 역사상 법랑자기는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었으나 오늘날 그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자태화법랑의 정의는 일치하는 편으로 경덕진에서 제작된 백자가 북경 청궁 조판처로 옮겨져 법랑으로 장식된 자기를 의미

용 법랑자기의 품종으로 이들의 정식명칭은 「瓷胎畫瑯瑤」 및 「瓷胎洋彩」이다. 모두 어용자기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제작된 장소, 양식적 특징에 있어 구별된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18세기 공식적인 법랑자기의 유입은 모두 청 황제의 하사품으로 건륭51년(1786)¹³, 건륭52년(1787)¹⁴, 건륭55년(1790)¹⁵ 등 총 3번에 걸쳐 하사되었고, 대략 10점 정도가 하사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건륭51년, 즉 정조10년 冬至使의 자격으로 청국에 파견된 安春君 李焜과 부사 李致中의 狀啓에서 확인되는 건륭제의 하사품 물목 중 하나인 ‘洋磁瑯瑤盒四件’은 조선 문헌 속에 등장하는 청대 법랑자기의 가장 이른 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양자법랑합의 하사 배경인데, 기록에 의하면 “통관이 말하기를 황상께서「비단은 매년 으레 보내는 것이니, 該國이 꼭 기이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文房과 器玩을 특별히 보내 주라.」 하셨는데, 이는 特恩이므로 마땅히 軍機房에서 신들에게 친히 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점이다. 건륭제의 특으로 조선에 항상 비단만을 보내다가 1786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하고도 새로운 하사품인 양자법랑합을 하사하였다’는 점은 즉, 바꾸어 말하면 정조10년 이전에는 청 조정을 통한 공식적인 법랑자기의 유입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전 기록에서 법랑을 뜻하는 명칭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사된 법랑자기의 품종인 ‘洋磁’는 경덕진 어요창에서 제작된 관요기로서 조선에 유입된 첫 어용법랑자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양자법랑을 처음 하사받은 이후 조선은 賜物에 대해 사례하는 표문 중 ‘崑玉洋磁之希品兼之彤管彩箋之珍’이라 하여¹⁶ 곤옥과 양자를 희소

한다. 양채의 정의는 ‘분채설’, ‘자태화법랑설’ 등이 있지만 건륭년간의 기록에 의하면 자태화법랑과 양채를 구분하고 있고, 대부분 경덕진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진 법랑자기를 의미한다. 분채는 양채의 異名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으나, 명칭 자체가 청말 민간에서 등장하였고 외관의 특징상 양채와의 관련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광채는 18-19세기 광둥지역에서 제작된 법랑자기를 의미한다. 施靜菲·彭盈真, 「從文化脈絡探討清代釉上彩名詞—瑯瑤彩·洋彩與粉彩」, 『故宮學術季刊』 29卷 第4期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12), pp. 5-23; 김은경, 「清 雍正時期 洋彩의 含意와 그 特徵」, 『美術史學』 第28號 (2014. 8), pp. 419-451.

¹³ 註10 上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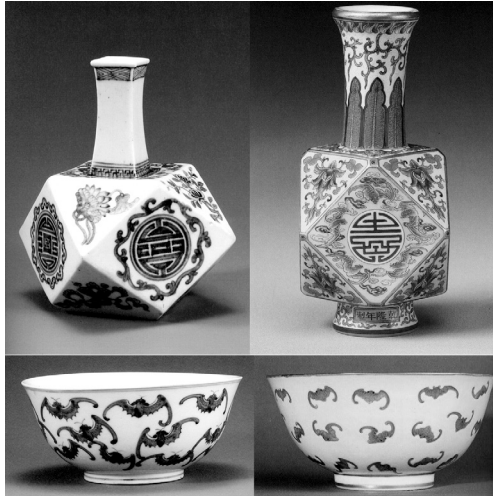
¹⁴ 『日省錄』 正祖11年(1787), 正月23日(丁未), “十二月初四日歲幣方物無弊呈納十九日臣等詣午門前依例領賞……玉器三件磁器四件玻璃器四件硯二方絹箋四十張筆二匣墨二匣洋磁瑯瑤盒四件雕漆器四件…….”

¹⁵ 『同文彙考』 四, 原編 錫賚一, 乾隆55年(1790) 正月, “禮部爲知照事主客司案呈查朝鮮國進貢并慶賀萬壽遣使來京除照例賞賜外所有格外賞賜國王之處相應開單知照朝鮮國王可也云云 計開 正月十三日圓明園山高水長加賞國王御筆福字一箇白玉如意一柄白玉香爐一件白玉筆洗一件琥珀碟一對瑯瑤瓶一對藍淡瓶一對洋磁盒一對紅漆茶盤四箇端硯二方筆三匣墨三匣花箋四卷福字花箋一百張 乾隆五十五年正月 日.”

¹⁶ 『同文彙考』 原編 卷之三十七 錫賚, 乾隆52年(1787) 9月 18日 “謝賜物表順付節使, 製申者, 使黃仁點, 云云乾隆五十一年三月二十四日謝恩兼冬至陪臣安春君李焜等……恩迺者崑玉洋磁之希品兼之彤管彩箋之珍珉奇玩則遐陬之所未見異數則往牒之所罕聞拜賜踴躍含恩銘鏤臣欽承德音伏地祇領外不勝感戴謹奉表稱謝云云……乾隆五十二年九月十八日.”

戊子進爵儀軌 (純祖28年, 1828)	戊子進爵儀軌 (純祖28年, 1828)	戊申進爵儀軌 (憲宗14年, 1848)
獻天花瓶圖	沈香花瓶圖	牡丹花樽圖
		
		
瓶底粉彩花卉紋包袂尊清, 乾隆 中國國家博物館	粉彩纏枝花卉紋貼嶺羅瓶 清, 乾隆 個人所藏	粉彩透影唐草文雙耳壺 清, 乾隆 東京國立博物館

도 2 19세기 의궤에 등장하는 청대 법랑자기



도 3 조선 후기 청화백자(左)에 보이는 청대 법랑기물(右)의 영향

품[希品]으로 形管이나 彩箋을 귀중한 물건[之珍]으로 분류한 것으로만 봐도 청궁 어용법랑자기를 조선국왕이 접할 수 있었던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유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19세기에 간행된 의궤 중 『戊子進爵儀軌』(純祖28年, 1828), 『戊申進爵儀軌』(憲宗14年, 1848) 등에서 18세기 청대 법랑자기로 보이는 기물이 확인된다(도 2). 아울러 19세기 왕실 문헌기록에는 양채나 법랑이라는 명확한 명칭은 등장하지 않지만, 19세기에 제작된 조선 청화백자에서도 다각형 병이나 박쥐문 등 18세기 청대 관양 법랑공예의 특징을 모방하거나 응용한 예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이 시기 조선에서는 일정량의 법랑기가 소비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도 3).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18세기의 법랑자기와 달리 실제 출토 및 전세되는 유물은 거의 전하지 않고 있다. 현재 18세기의 왕실 부장품 중 가장 최근에 발견된 영조의 7녀 화협옹주(1752년卒)를 비롯하여 사도세자의 장자인 의소세손(1752년卒)(도 4), 영조의 10녀였던 화유옹주(1777년卒)(도 5), 정조의 첫 번째 후궁이자 당시 최고 권세가였던 홍국영의 누이 원빈 홍씨(1779년卒)(도 6), 정조의 장남이지만 5살만에 요절한 문효세자(1786년卒)(도 7) 등에서 도자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 의소세손, 원빈 홍씨, 화협옹주, 화유옹주묘에서만 수입산 채색자기가 출토되었지만, 18세기의 편년을 가진 청대 법랑자기로는 화협옹주와 화유옹주묘에서 출토된 2점만 전하고 있다(도 8).

이들 왕실 일원 분묘의 부장품 구성에 있어 공통점도 발견되지만 차이도 함께 확인된다. 먼저 화협·화유옹주, 의소세손, 원빈 홍씨, 문효세자 묘에서 공통적으로 청화 위에 홍채로 문양을



도 4 의소세손(1752년쑤)묘 출토품,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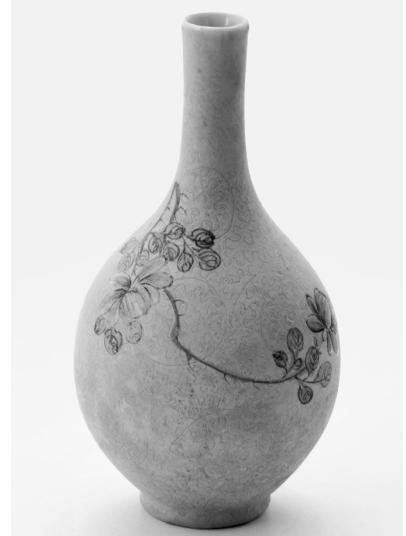
도 5 화유옹주(1777년쑤)묘 출토품, 국립고궁박물관



도 6 원빈 홍씨(1779년쑤)묘 출토품, 국립중앙박물관



도 7 문효세자(1786년쑤)묘 출토품, 국립중앙박물관



도 8 〈粉彩黃地月季紋瓶〉, 淸, 乾隆, 화유옹주묘 출토, 高14.3cm, 口徑1.7cm, 국립고궁박물관



도 9 원빈 홍씨묘 출토 일본 히젠자기

그런 후 윤곽선을 금채로 두르는 일본식 오채자기가 출토되었다. 이는 에도시대의 아리타에서 제작된 히젠자기로 알려져 있다(도 9).¹⁷ 당시 조선왕실에서 공식적으로 분원 백자를 사용했던 왕실 자기문화를 상기한다면 매우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화협옹주, 의소세손과 원빈 홍씨묘에서는 조선백자 제기와 청대 청화자기, 에도시대 히젠자기의 조합을 이루는 반면 화유옹주묘에서는 조선백자 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옥비녀, 유리병, 옥배, 은제 주전자, 은제합, 휘녹석 베틀, 히젠자기, 청대 청화자기와 법랑 등 종류별로 매우 다양한 구성을 보인다. 이처럼 같은 왕실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부장품 구성의 차이가 있으며, 또 유독 옹주묘에서만 청대 법랑자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옹주의 상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옹주는 국왕의 후궁에서 낳은 딸로 유교 신분제 사회에서 서가인과 결혼하여도 사망 때까지 왕족의 신분은 보장받았다. 하지만, 옹주의 신분으로서 법전이나 국가전례서에 옹주의 喪葬 규정은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왕세자 신분 이하로는 의례를 남길 수도 없었으며, 그나마 臚錄¹⁸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옹주의 상례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두 옹주의 사망과 관련된 기록 역시 많지 않은데, 다만 정조 원년(1777) 『日省錄』의 기록을 통해 두 옹주의 상례 상황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화유옹주의 상을 당했으니, 삼가 상상하건대 성상께서 슬프고 가슴 아프실 것입니다.”……내가 이르기를 “뜻밖에 옹주의 상사가 났다. 호조에서 내주는 경비는 전례가 어떠한가?”하니, 홍낙순이 아뢰기를 “임신년 화협옹주의 喪事 때 節目을 바로잡으면서 요긴하지 않은 데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위에서 없앴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거행한다면 대단한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¹⁹

“뜻밖에 화유옹주의 상사가 났으니 나의 슬픈 마음을 무엇으로 형언할 수 있겠는가....그 밖의 일들은 이미 선조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고 하니, 규례에 비추어서 하라고 호조에 분부하라. 五色

¹⁷ 김미정은 오채자기 합에서 보이는 닐물문양이 일본 규슈 지역 가마인 猿川窯에서 출토된 청화자기 陶片의 닐물표현과 유사함을 지적한 바 있다. 김미정, 앞의 논문, p.25.

¹⁸ 臚錄은 국가에서 행한 일이나 사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주무 관청이 그대로 적어 훗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으로 일시로 쓰는 것일 뿐이고 영구히 쓸 기록이 아니었다. 심승구, 「영조 말들의 혼례 특징과 『옹주가례등록』의 가치」, 『한국학논총』 43권 (2015), p.90.

¹⁹ 『日省錄』 正祖元年(1777), 5月 21日(乙酉), “敎曰副提調寺加減心腎湯入侍……國榮日和柔翁主喪訃伏想聖懷悲慟矣……予曰翁主之喪出於意外戶曹經費前例何如, 樂純日和協翁主喪事釐正節目不緊所入皆自上抹下依此定式舉行則不至大段矣…….”

大緞 및 각종 物貨는 또한 숙경옹주의 상사에 의거하여 즉시 실어 보내라고 該院에 분부하라.”²⁰

위 기록을 통해 상례는 선대 옹주의 절차에 의거하여 치렸으며, 상례에 소요되는 절목은 화협옹주 때 이미 간소화 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왕실의 상장제도에 따라 옹주의 장례가 행해졌으므로 의소세손과 원빈 홍씨, 그리고 문효세자의 부장품과 어느 정도의 친연성은 보인다.²¹ 가령 청화잔이나 합, 청화문방구, 은제합, 동제합, 석제합, 벼루 등으로 주로 화장용기 및 문방구 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왕실 상장제도에 따른 부장품의 구성을 봤을 때 옹주묘의 청대 법랑자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화유옹주보다 2년 후에 사망한 원빈 홍씨의 분묘에서도 법랑자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이는 혹여 궁에서 생활했고 내명부의 작위를 받았던 嬪과 사대부에게 下嫁된 옹주의 신분적 상황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이 문제는 근래 화협옹주묘 출토품 중 청대 법랑자기가 발견됨으로서 충분한 고찰의 여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화협옹주묘의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조선 유입 청대 법랑자기의 특징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대의 법랑자기는 제작된 장소 및 양식적 특징 등을 근거로 여러 종류로 나뉜다. 그렇다면, 18세기 문헌자료와 출토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조선으로 유입된 법랑자기는 어떤 종류에 해당될까? 먼저 앞서 살펴본 문헌기록 중 건륭제에 의해 3차례 조선 왕에게 하사된 법랑자기는 기록상 洋磁法瑯이라 적혀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瓷胎洋彩라고 인지하고 있는 소위 양채자기임이 분명하다. 양채는 경덕진 어요창에서 제작된 어용법랑자기로 청궁에서만 그 사용이 허락되었다. 따라서 정조 10년(1786) 청 황실을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유입된 법랑자기는 청궁의 어용자기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19세기 의궤에 등장하는 18세기 법랑자기 역시 현재 전세되는 18세기 건륭 관요 양채와 양식적으로 매우 흡사하기 때

²⁰ 『日省錄』 正祖元年(1777), 5月 21日(乙酉), “和柔翁主之喪出於意外予心愴悼曷可言喻……其他諸事既有先朝定式云照例爲之事分付戶曹 色大緞及各樣物貨亦依淑敬翁主喪卽爲輸送事分付該院…….”

²¹ 의소세손은 세손의 예장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세자의 예장절차에 준하여 치렀으나 세자보다 의물의 규정, 규격, 수효를 줄여 세자보다 등급을 낮추었다. 의소세손 상례와 관련하여 다음 논고를 참고; 이현진, 「영조대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예장(禮葬)과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46권 (2014), pp. 168-221. 원빈홍씨 상례는 『正祖實錄』에 의하면 홍국영의 관여로 매우 호화롭게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正祖實錄』, 正祖3年(1779) 5月 7日(庚寅), “時洪國榮, 橫恣日甚, 舉朝莫敢拂意, 洪氏殯葬之節, 禮官悉援僭例. 宋德相至以爲當有公除, 寢不行.”).

문에 이 역시 청궁 어용자기로 판단된다(도 2 참고). 그렇다면 옹주묘 출토 법랑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화협옹주는 1752년 사망하고 1776년 묘지가 이장되는데,²² 최근 발굴된 유적은 유골이 없고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평구마을에 화협옹주 부부합장묘가 전하고 있어, 이장하기 전 옹주의 최초 무덤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화협옹주묘 법랑자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벽이 두껍고 외벽에는 분홍색 바닥에 꽃넝쿨무늬가 조약하게 장식되어 있다. 굽 안바닥에는 희미하지만 청화방식으로 成化年製의 명문이 있다. 1752년은 건륭재위 기간이지만, 분홍색과 노랑색을 조합하고 꽃잎의 안쪽과 끝을 글라레이션 기법으로 채색하는 동백꽃무늬는 옹정시기 법랑자기의 꽃무늬와 유사

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도 10). 또한 바닥에 쓰인 명대 관지의 표기는 명 말부터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된 자기에서 자주 확인된다. 상기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기벽이 매우 얇은 御用 법랑자기와는 달리 기벽이 두껍고 도안의 정세함에 크게 떨어지며, 민요에서 유행한 명대의 관지가 쓰인 점으로 보아 옹정-건륭초기에 제작된 경덕진 민요산 법랑자기로 판단된다.



도 10 〈粉彩折枝花卉紋盤〉, 清, 雍正, 景德鎮中國陶瓷博物館



도 11 좌) 〈粉彩黃地月季紋瓶〉 부분
 우) 〈瓷胎畫琺瑯錦上添花黃地碟〉, 清, 乾隆六年(1741),
 高3.1cm, 口徑14.3cm, 臺灣國立故宮博物院

화유옹주묘 출토품 〈粉彩黃地月季紋瓶〉은 옹주묘가 남편 昌城尉 黃仁點과의 합장묘임을 감안한다면, 제작된 하한 년대를 옹주의 사망시점인 1777년부터 남편 황인점이 사망한 1802년까지로 상정할 수 있다.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란색의 바닥에 청 건륭 관요 양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錦上添花’기법이 남아 있고,²³ 그

²² 『日省錄』 英祖52年(1776), 1月 12日(甲申), “召承接旨于尊賢閣, 令曰和協翁主遷窆日遣內侍致祭祭文令藝文.”

²³ 금상첨화기법이란 양각 혹은 채화가 된 바탕면 위에 다시 꽃무늬 등을 그려 넣는 기법이다. 건륭년간 양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기법으로 당시 어요창 독도관이었던 唐英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廖寶秀, 『華麗彩瓷—乾隆洋彩』(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8), p. 21.



도 12 〈粉彩黃地月季紋碗〉, 清, 乾隆, 野崎家塩業歴史館

위에 분홍색의 월계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이 양식은 용·건 관요 자태화법랑과 양채에서 그 典範을 찾을 수 있는 등 ‘官樣’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도 11). 게다가 동반 출토된 녹색유리병의 바닥에 ‘大清乾隆年製’ 명문이 있어 제작년대 추정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유물은 종친이 사용한 것이므로 관요기에 필적하는 고급 기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유사한 유물이 청 말 일본으로 수출된 민요산 자기들 중 다수가 출토 및 전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유물들은 숟가락, 차완, 접시 등 생활 식기세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기명에는 18세기 후반 이후 경덕진 민요에서 유행하였던 변형글체의 청화 명문이 남아 있거나 출토품일 경우 19세기 1/4분기에 해당되어 대략 18세기 말 19세기 초로 그 제작 년대가 상정된다(도 12). 따라서 이 분채병의 제작 시기는 건륭년간(1736-1795) 법랑자기가 민간에서 제작되어 수출되는 그 어느 시점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하사품과 의례 속 법랑기물은 건륭시대 양채로 판단된다. 그리고 옹주묘 출토품은 옹정과 건륭시대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되었던 법랑인 분채로 사료된다. 이는 곧 청나라 법랑자기가 제작 주체와 생산지에 따라 공급 대상 및 이동 루트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즉, 성격이 다른 각각의 청대 법랑자기가 본연의 용도에 따라 조선 왕실과 私家의 옹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다시 말해 청 황제의 사여품이었던 문헌 속 용자기와는 달리 옹주묘에서 출토된 청대 법랑자기는 민요에서 제작되어 매매가 가능했던 상품의 성격을 지닌 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품이 국내 소비를 넘어 해외로 그 판로를 넓힌다면 광의적 개념에서 무역자기의 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도자사에 있어 ‘무역자기’라 함은 상품으로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시장 논리에 철저히 부합되는 특수 목적형 자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옹주묘 출토품은 이런 무역자기의 정의에 부합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상품이 소비되는 시장 환경과 소비층의 요구에 의해 제작되는 자기의 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그 해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법랑자기의 수출 지역은 크게 서양과 동양 대륙으로 나뉘며,²⁴ 양식 면에서 내수용을 포함한 중국풍과 특정 지역을 위한 주문제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8세기 초 유럽에 수출된 초창기 청대 법랑자기는 중국 전통양식이었지만, 건륭시기 들어서 유럽으로의 중국 자기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양의 수요와 유럽인들의 심미관이 적용된 소위 주문제작 [訂燒器]형 자기가 주를 이룬다. 서양식 식기세트는 물론 서양식 문양 및 도안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도 13). 반면, 청대 법랑자기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유럽보다 훨씬 늦게 시작되었다. 대략 18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에 따라 중국풍과 주문제작형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 청의 법랑자기 수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곳은 태국이었다. 18세기 후반부터 태국은 궁정용 자기를 경덕진에서 주문 제작하였는데, 이런 자기를 벤차롱(Bencharong)이라고 한다. 벤차롱은 ‘五彩’라는 의미이며 기면에는 법랑기법으로 불상 및 인간계와 천계의 중간인 히마판 숲(Himmapan Forest)에 사는 반신반인, 혹은 연꽃과 같은 불교 도상이 표현되곤 했다(도 14).

이처럼 해당 지역의 풍토와 관습에 적합한 주문형 법랑자기가 수출된 예도 있지만, 일본과 같이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중국풍의 법랑자기를 수입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일본과 청



도 13 <廣彩風景紋醬汁蓋盆>, 清, 乾隆, 高31.8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도 14 <bencharong ware>, 清, 乾隆-同治,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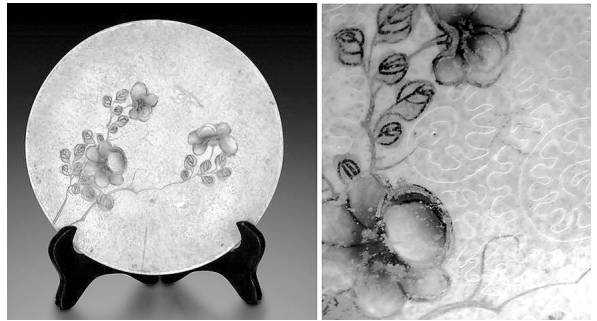
²⁴ 청대 수출 법랑자기에 관한 연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면 관계상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周思中, 『清宮瓷胎畫琺瑯研究1716-1789』(北京: 文物出版社, 2008); 施靜菲, 『日月光華—清宮畫琺瑯』(臺北: 故宮博物院, 2013); 廖寶秀, 『華麗彩瓷—乾隆洋彩』(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8); 尾野善裕, 『魅惑の清朝陶磁』(大阪: 読売新聞社, 2013); Dawn F. Rooney, *Bencharong: Royal Thai Porcelain* (Bangkok: River Books, 2001); Michael Gillingham, *Chinese Painted Enamels* (Oxford: Ashmolean, 1978); Rose Kerr, *Chinese Ceramics: Porcelain of the Qing Dynasty 1644-1911*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86); Rose Kerr and Luisa E. Mengoni, *Chinese Export Ceramics*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2011).



도 15 일본 傳世 청대 법랑자기 일괄, 淸, 乾隆-嘉慶, 野崎家塩業歴史館

의 도자 무역은 18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막부공인의 유일한 공상무역 항구였던 나가사키에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²⁵ 이후 18세기 후반경이 되어서야 청대 도자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때 수입된 법랑자기는 중국식 관, 접시, 찻잔, 완, 숟가락[湯匙] 등의 기형이 주를 이룬다(도 15). 문양 역시 중국식의 산수문, 화훼, 길상문 등이며, 장식기법에서도 건륭시기 양채의 주요 기법인 '금상첨화'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일본 전세 및 출토품 중 일부가 화유옹주묘 출토 〈粉彩黃地月季紋瓶〉과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내 출토품 중 동일한 양식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도 16). 이는 주로 주문제작형이 수출된 유럽 및 동남아 국가와 달리 중국 내수용 그릇이 수출 혹은 모종의 과정을 통해 동시기 조선과 일본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8세기 조선으로 유입된 청대 법랑자기를 문헌기록과 출토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선에 유입된 청대 법랑자기는 크게 청궁 소용 어용자기의 성격을 지닌 양채와 일반 민요에서 제작되어 상품의 성격을 지닌 분채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조선으로 유입된 법랑자기는 서양과 동남아시아 일대로 수출된 주문제작형 법랑자기와 달리 중국 내수용 자기와 거의 차별이 없음을 확



도 16 〈粉彩黃地月季紋盤〉, 淸, 口徑19.5cm, 景德鎮市 출토, 景德鎮民窯博物館

²⁵ 尾野善裕, 『淸朝陶磁と日本』, 『魅惑の淸朝陶磁』(大阪: 読売新聞社, 2013), p. 12.

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동시기 일본의 상황과도 매우 비슷하다. 각 대륙마다 달리 나타나는 청대 법랑자기의 양식은 아마도 자체적 문화기반 하에 형성된 생활상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운송수단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조선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모두 항구를 통해 출고되어 해로로 운반됨으로서 대량 수출이 가능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수량의 확대는 결국 이 지역들이 청대 법랑자기의 주요 시장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Ⅲ. 18세기 청대 법랑자기의 조선 유입 배경과 과정

앞서 18세기 조선의 문헌 속에 등장하는 건륭제 하사품인 ‘洋磁瑯琊’은 양채라고 기록에도 밝히고 있듯이 청 황제가 직접 조선 국왕에게 하사하였기 때문에 어용자기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하다. 반면 두 옹주묘에서 출토된 법랑자기는 품질이 낮은 민요 제작품으로 추정되며 그 유입과정 역시 불분명 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민요에서 제작되어 모종의 과정을 거쳐 조선으로 유입되었을 옹주묘 출토품을 통해 청대 법랑자기가 조선으로 유입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화협옹주묘 출토품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본 고에서는 간단히 언급 정도만 하고자 한다.

1. 중국 내 법랑자기 제작의 확산

법랑자기가 개발된 강희년간에는 그 사용처가 오로지 청궁에만 한정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료 개발과 제작이 모두 청 황제에 열렬한 관심과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법랑자기의 가장 큰 특징은 테레빈유와 비소를 포함한 백색의 玻璃白이 함유된 안료를 사용하고,²⁶ 서양 가마인 Enamel Muffle Furnace와 구조가 동일한 明爐를 이용하여 구워내는 것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자기 제조 과정과 다르다.²⁷

주지하다시피 이 새로운 기술은 강희22년(1683) 광동항을 통해 서양법랑기가 처음 소개된 이후,²⁸ 강희제의 명령에 의해 청나라에서도 자기에 법랑을 장식하는 기법이 시도되었다. 법랑자

²⁶ 張福康, 「中國傳統低溫色釉和釉上彩」, 『中國古代陶瓷科學技術成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 342-348.

²⁷ 王光堯, 「內外作坊一體化—雍正朝瑯琊瓷器生產之變」, 『紫禁城』第10期(北京:故宮博物院, 2009), pp. 52-59.

기는 청궁 조판처에서 처음 제작되고, 이후 옹정제와 怡親王 允祥으로 대표되는 황족의 적극적 후원으로 법랑자기 제작은 물론 중국 최초 법랑안료의 자체적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²⁹ 법랑장식 공예품들(銅胎, 瓷胎, 玻璃胎, 宜興胎)은 원칙적으로 청궁에서만 사용이 허락되었으며, 간혹 황제의 하사에 의한 극소수의 조정대신 및 蒙古, 西藏의 귀족들 외에는 소용하기가 어려웠다.³⁰ 이처럼 청 황실의 기획 하에 청궁 내 조판처를 주축으로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청대 초기의 법랑기술은 청 황실을 위한 고급 공예장식 기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랑자기 제작 기술 역시 청궁 조판처와 경덕진 어요창에서만 공유되었으며, 심지어 어요창에서의 법랑자기 제작은 옹정6년(1728)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³¹

그런데 18세기 조선에는 양채만 유입된 것이 아니라 민요에서 제작된 분채도 확인되었다. 청궁에서만 사용이 허락되고 제작되었던 법랑자기는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민간 요장에서 제작될 수 있었을까? 본래 법랑자기의 시작은 강희년간 조판처에서 제작된 「瓷胎畫琺瑯」으로, 이때는 ‘법랑자기를 제작하는 것 보다는 ‘금속공예 기법인 법랑을 다른 물질(백자, 유리, 의홍자기)에 응용하기 위한’ 개념이 우선이었기 때문에³² 백자 생산은 어요창에 맡기고 법랑 안료의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었던 조판처에서 加彩 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조판처는 자기를 만드는 공방이 아닌 법랑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일종의 연구소였다. 그러다가 옹정년간 이후 안료의 자체 제련 및 새로운 양식을 위한 법랑장식 기법 개발을 위해 경덕진 어요창과의 협업은 자연스럽게 청궁 조판처 법랑기술의 지방 전파로 연결된다. 특히 옹정6년(1728) 자체적으로 안료 개발의 성공과 동시에 당시 경덕진 어요창 督陶官에게 이를 사용하여 자기 소조 번조를 지시한 사실은³³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법랑기술의 핵심 공방인 청궁 조판처 외에도 요업의 중심지인 경덕진에서 법랑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법랑안료를 자기 장식에 알맞도록 개량 및 개발한 중앙 본

28 施靜菲·王崇齊, 「乾隆朝粵海關成做之〈廣琺瑯〉」, 『國立臺灣大學美術史研究集刊』第36期(臺北:國立臺灣大學藝術史研究所, 2013), p. 95.

29 余佩瑾, 「唐英與雍乾之際官窯的關係—以清宮琺瑯彩瓷的繪製與燒造為例」, 『故宮學術季刊』第24卷 第1期(臺北:國立故宮博物院, 2006), p. 14.

30 施靜菲·王崇齊, 앞의 논문, p. 89.

31 清, 唐英, 「內務府各作成做活計清檔」, 『乾清宮』乾隆7年(1742) 12月 11日, “太監王炳來說太監高玉交洋彩黃地御製詩轎瓶一對, 傳旨: 配匣入乾清宮法瑯器皿內, 欽此.”

32 김은경, 앞의 논문, p. 437.

33 清, 『造辦各作成做活計清檔』 雍正6年(1728) 7月 12日, “據圓名園來帖內稱, 本月初十日怡親王交西洋琺瑯料: 月白色, 白色, 黃色, 綠色, 深亮綠色, 淺藍色, 松黃色, 淺亮綠色, 黑色, 以上共九樣……新增琺瑯料: 軟白色, 香色, 淡松黃色, 藕荷色, 淺綠色, 醬色, 深葡萄色, 青銅色, 松草色, 以上共九樣……給年希堯燒瓷用.”

부에서 경덕진 어요창으로의 기술 전파는 훗날 ‘洋彩’ 제작의 시발점이자 중요 조건이 되었다.

건륭시기부터 양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면서 사실상 법랑자기의 생산라인은 청궁을 떠나 경덕진 어요창으로 대부분 옮겨오게 된다. 동시에 청궁 조판처의 법랑 기술은 점차 쇠퇴하면서 법랑을 다루었던 공방들은 대부분 금속공예의 일부인 掐絲琺瑯 제작 위주로 전환되었다.³⁴ 경덕진 어요창에서 법랑자기 생산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물론 이를 지시하고 수행하는 황실 구성원의 교류가 절대적이었지만, 민간 장인들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당시 어요창에서 법랑기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장인들은 대부분 민간 장인들로 경덕진 도자업 종사자들, 유리장인 등이었다.³⁵ 법랑자기 제작의 주요 무대가 남쪽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경덕진 민요는 물론 광동의 粵海關成에서 소위 ‘廣琺瑯’라 불리는 광동식 법랑자기도 활발히 제작되기에 이르렀다.³⁶

청대의 법랑자기 기술은 그저 단순한 공예기술의 한 부분이 아니다. 태생부터 황가의 철저한 관리 속에 개발되었고, 심지어 청궁 내에서 제작되어 황족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고급 공예 품이었다. 그러나 건륭시기 본격적인 제작지의 이동으로 법랑기술은 더 이상 어용자기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 요장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향후 경덕진의 수출자기 품목 중 법랑자기가 포함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8세기 중후기 급격하게 증가한 경덕진 법랑자기의 외수문제를 떠올린다면 매우 중요한 사항이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18세기 중·후반 옹주묘에서 출토된 법랑자기는 조판처 혹은 어요창에서 제작되어 황실에 進貢된 후, 다시 청 조정을 통해 전해진 것이 아닌 중국 내 법랑자기 제작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매매된 상품으로 이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2. 18세기 청대 법랑자기의 조선 유입 과정

필자는 앞 장에서 화유옹주묘 출토 〈粉彩黃地月季紋瓶〉은 양식적 특징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출토 및 전세품을 통해 민요산 법랑자기일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분채병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화유옹주 혹은 그의 남편 황인점에게 전달되어 훗날 부장품으로 문힐 수 있었을까? 조선은 개국 이래로 중국과 지속적인 도자교섭을 통해 왕실과 민간 사이에서

³⁴ 施靜菲·王崇齊, 앞의 논문, p. 109.

³⁵ 施靜菲, 「十八世紀東西交流的見證—清宮畫琺瑯工藝在康熙朝的建立」, 『故宮學術季刊』第24集 第3期(臺北:故宮博物館院, 2007), p. 55; 吳兆清, 「清代造辦處的機構和匠役」, 『歷史檔案』第4期(北京:中國第一歷史檔案館, 1991), pp. 79-89.

³⁶ 施靜菲·王崇齊, 앞의 논문, p. 109.

상당수의 중국 도자가 유입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 중 다수를 차지하는 품종은 청화백자로 경덕진 민요산이 가장 많으며, 간혹 복건성의 덕화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도 확인된다.³⁷ 현재까지 조선유적지에서 출토된 경덕진 민요산 청화백자는 명-청시기에 걸쳐 대량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이 원했던 취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국 내에서의 생산 역시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18세기 청 사회에서의 범랑자기 소비와 생산 규모는 어떠했을까? 영조 때의 유학자 木山 李基敬이 1755년(영조31) 음력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4개월간 冬至使書狀官으로 북경을 다녀오면서 쓴 일기인 연행록 『飮水行程曆』을 통해서도 당시 청 사회에서의 범랑자기 소비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이기경은 通州에서 작은 대접과 찻잔을 구입했을 때 바닥에 ‘大明成化年製’라는 글씨를 발견하고 골동품인 줄 알고 매우 기뻐하였으나 이내 역관들에 의해 새로



도 17 〈粉彩花卉紋碗〉, 清, 圓明園 長春園 宮門區 출토, 北京市文物研究所

이 제작하는 자기에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글을 새기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³⁸ 이기경이 이 자기를 명나라 제작품으로 오해하였다는 점, 그리고 大明成化年製라는 명문은 당시 명말 이후 경덕진 민요산 청화자기와 오채에서 자주 확인되는 특징으로 보아 이는 필히 경덕진산 청화자기 혹은 오채 자기임이 틀림없다. 1755년이라면 건륭제의 치세기간으로 경덕진 어요창에서는 양채가 매우 활발히 제작되고 있었지만, 북경의 동부에 위치한 통주의 민가에서는 여전히 청화 및 오채자기를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 실제로 북경 지구나 원명원 장춘원 궁문 지역에서 출토된 민요 범랑자기를 보면 18세기 후반 이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량 역시 민요 청화백자에 비해 소수에 그친다(도 17).³⁹

³⁷ 선학들에 의해 조선에 유입된 중국산 청화백자를 다룬 연구는 이미 일정 성과를 이루었으며, 연구의 폭 역시 매우 넓은 편이다. 대표적 연구로 다음을 참고: 전승창, 「조선 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美術史學研究』 第264號 (2009. 12), pp. 35-62; 이종민, 「한반도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유형과 의미」, 『中央史論』 第35輯 (2012. 6), pp. 279-321; 박정민, 「조선 전기 한양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소비상황 연구」, 『야외고고학』 제17호 (2013. 7), pp. 31-59.

³⁸ 이기경著, 이순구外 譯, 『1756년의 북경이야기: 이기경의 음빙행정력』 (교육과학사, 2016), p. 243; 李迎春, 「木山 李基敬의 燕行錄『飮水行程曆』」, 『한중인문학연구』 44권 (2014. 8), p. 438.

³⁹ 문헌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원명원 장춘원 궁문은 적어도 건륭10년(1745)에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위의 사실에 근거하면, 18세기 중기에는 비록 경덕진 민요에서도 법랑자기가 제작되고 있었고 또한 유럽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지만, 내수시장을 위한 법랑자기의 유통은 청화백자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동시기 조선의 상황을 봤을 때 문헌기록이나 용주묘의 예처럼 18세기에 법랑자기를 접할 수 있었던 계층은 분명 한정적이었던 만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일반 중국산 자기처럼 당시기계와 같은 일종의 민간 협동단체가 간여하는 형태⁴⁰는 아니었을 것이며 그과정 역시 달랐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연행기록과 중국 내 출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소 18세기 중기에는 민간으로 유통되는 법랑자기의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며, 18세기 후기가 되면서 그 수량이 점차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8세기 후반의 편년을 가진 조선 출토품이나 일본의 전세 및 출토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당시 거래되는 법랑자기의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숙종38년(1712) 김창업의 『老稼齋燕行日記』 기록을 통해 당시 채색자기의 거래가격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통주에서 화려하고 정교한 채색자기를 보고 구입하려다가 한 쌍에 40 금이나 되어서 구입을 포기하게 된다.⁴¹ 이 시기는 아직 법랑자기가 민간에서 유통되기 이전이기에 김창업이 사려던 채색자기는 두채 혹은 오채자기로 추정되는데, 가격이 매우 비쌌음을 알 수 있다. 하물며 테레빈유와 같은 서양 안료의 베이스가 첨가된 새로운 안료와 채색 및 장식, 소조 등 제작 공정이 훨씬 복잡한 법랑자기의 가격은 당시 청 사회에서도 매우 고가에 거래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점과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

관·민의 청대 자기가 다량 발견되었는데, 청화는 64점인 반면 법랑자기는 21점에 불과하며 대부분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민요산이다. 北京市文物研究所, 『圓明園長春園宮門區遺址發掘報告』(北京:科學出版社, 2009), pp.98-111.

⁴⁰ 『唐沙器契』의 정의에 대하여 김미경은 중국산 자기를 취급하던 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하 바 있으며, 문헌기록을 통해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당시기계에 관한 기록은 1777년(정조원년)에 간행된 『英宗大王實錄 廳儀軌』,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 중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甘結秩」에서 麾·旌·蠡에 화원이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도구 중 '唐大貼一竹'은 당시기계가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甘結秩」, 丁酉 五月 十二日, “右甘結 麾·旌·蠡 起畫時 畫員所用 畫水筆各四柄·沙菓子七介·唐大貼一竹·沙貼匙一竹半, 文書所用 白休紙二介, 星火進排事, 工曹 盤沙器契 唐沙器契 司贍寺”). 또한 비록 19세기 초의 상황이지만 순조5년(1805) 貞純王后 金氏의 국장 시 필요한 중국산 자기를 당시기계가 진배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卷之四 初喪諸具, “初終乙丑正月十二日 新綿內備……引刀一 針子一封以上塵唐粉五兩彩色契 阿膠二兩繕工監 唐大樑二箇 唐沙鉢二箇 唐樑匙三箇 磨子三箇 以上唐沙器契……”); 김미경, 앞의 논문, p. 31.

⁴¹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卷之三, 肅宗38年(1712) 12月 26日(乙亥), “……入城內, 路左有畫器鋪, 遂下馬見之, 三間大屋, 各樣器皿 充棟盈架 形色種種奇異 不可名狀, 其中有大器 經數尺 高亦如之 厚寸許 外面所施彩畫 極其精麗, 問其價一雙討四十金, 申之淳 遇陽兩人隨來, 見是器 皆艷歎不已……”

있을 법랑자기는 청화백자와는 달리 대량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선 상인들이 청 상인들과 거래했던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을 중심으로 한 中江과 柵門 등지로 유통되었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18세기 중·후반 청 나라에서 법랑자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지역과 구매자는 한정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채병은 이미 옹주의 남편 창성위 황인점이 정조원년(1776) 進賀兼謝恩使로 임명된 이후 1793년까지 사신의 신분으로 여러 차례 청을 방문한 기록을 근거로 황인점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⁴² 게다가 다른 왕족들은 조선 백자 명기나 문방구가 거의 대부분인 반면 화유옹주는 은제 주전자, 은제 합, 옥비녀, 휘닉석 벼루 등 종류가 다양하며 유리병, 옥배, 청화유개잔 등 다수의 청나라 기물도 포함되어 있어 다른 누구보다 청나라를 자주 찾았던 황인점의 영향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필자 역시 대체적으로 선행연구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로 사행단의 신분으로 북경 혹은 그 인근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남편 황인점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황인점이 사행단 신분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법랑자기의 공식적 유입 경로는 사행무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행단이 자기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는 청의 관리들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면서 받은 각종 증여품 중 자기가 포함되는 경우이거나,⁴³ 사행단이 주체가 되어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互市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 자기의 구입은 주로 盛京(현 심양)과 책문, 통주 등에서 이루어졌다.⁴⁴ 황인점과 같은 사절단은 주로 통주 혹은 북경 방문 시 용복사나 유리창에 가서 자기를 비롯하여 각종 고동이나 서화 등의 물화를 구매했었다.⁴⁵ 무역물품 중 법랑에 대한 직접적 기록은 없지만 사행단이 공식으로 무역을 행할 수 있었던 開市나 사행무역이 행해진 반 공인 된 회동관후시⁴⁶ 등에서도 자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인점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粉彩黃地月季紋瓶〉을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단을 위시한 사행무역로는 주로 육로를 통한 무역이었다. 명대 후기에 들어 만주족의

⁴² 註3 上同.

⁴³ 徐浩修, 『燕行記』卷二 高宗7年(1870) 7月 19日(丁酉), “晴, 留熱河……戲止前閣老和甲領欽賜各種頒于參宴諸臣, 余與正使各磁瓶一箇 象牙茶盤一箇 書狀官磁碗一箇 磁碟一箇 象牙茶盤一箇…….”

⁴⁴ 李岬, 『燕行記事』[下], 正祖元年(1777), 「聞見雜記」雜記, “……通州則香價雖踊, 而色品與制刻, 勝於燕市, 歸時卜物結裹大布繩子及口袋, 留館時所用鐵絲燭籠肉燭糧太等物價直, 比燕京差歇, 故人皆買賣, 至於磁器及花品亦佳矣, 及其回還, 使行出柵, 仍令互市于柵外, 凡東商紙扇牛革綿布魚網狐狸之皮, 自義州照數入送, 定以一萬兩價銀不許濫入, 買取于柵商者, 棉花, 鎔錫, 蘇木, 胡椒, 龍眼, 荔枝, 閩薑, 橘餅各種磁器之屬……”

⁴⁵ 金正中, 『燕行錄』, 正祖15年(1791) 正月初9日, 「奇遊錄」, “晴, 是日, 納歲幣方物於體仁庫中, 松園觀隆福寺開市, 買花磁茶鍾一 卵色酒瓶一 金色盃一 歸誇余 明燭摩 真佳品也.”

⁴⁶ 姜龍洙, 「朝鮮時代 對清貿易에 관한 研究」, 『산업경제연구』9권 (1996. 8),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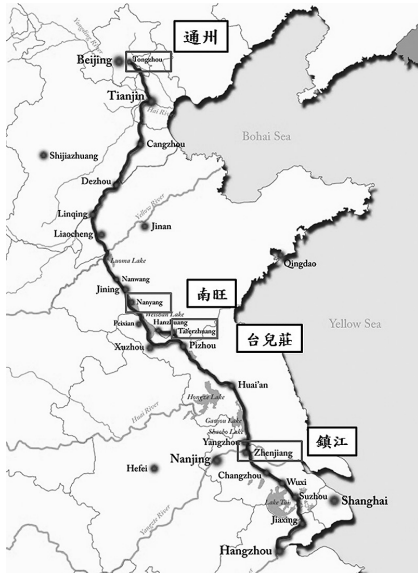
도 18 (左)山東省 棗莊市 台兒莊區 운하유적 및 (右)汶上縣 南旺 운하유적 출토 청대 청화자기, 山東省博物館

흥기로 인하여 해로를 잠시 택한 적은 있었으나⁴⁷ 육로가 해로보다 편리하고 훨씬 단거리였으며, 단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청대에 들어서는 육로를 통한 대청무역이 이루어졌다.⁴⁸ 시간이 단축되다 는 점에서 장점도 있었지만 육로이기에 많은 물화를 실어오는데 불편하였다. 그래서 보통 상인들 은 기물이 무거우면 싣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邊門에서 사가지고 돌아갔다.⁴⁹ 이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과 수량의 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물화를 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중국내의 자기 내수 상황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산둥지역의 청대 유적에서 당시 북부에 위치한 여러 窯場 생산품과 함께 남부 강서성 경덕진, 복건성의 요장에서 제작된 자기들 또한 상당량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남방지역의 자기가 중국의 최단 북방지역으로 상당수 내수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자기들은 북방의 내수를 위해 京杭大運河를 통해 운송되었을 것이다. 그 예로 경향대운하가 지나는 山東省 棗莊市 台兒莊區 古運河와 汶上縣 南旺 運河유적에서 각각 경덕진요, 복건성의 德化窯, 羅源窯 등 남방의 청화자기가 다량 출토되었다(도 18). 경향대운하는 북경과 항주를 잇는 세계 최장의 운하로 北京, 天津, 河北, 山東, 江蘇, 浙江을 거치는데 부분적으로 강서 경덕진을 끼고 있는 鎮江-산동의 台兒莊-하북의 滄州-天津-通州를 거쳐 북경에 다 다른다(도 19). 경덕진산 자기가 진강에서 적재되어 북상하여 통

47 조선과 중국(明·淸)의 도자교섭 중 발생하는 무역의 형태와 무역로를 다룬 연구로 다음을 논문을 참고: 이종민, 앞의 논문, pp. 305-312; 장효진,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流行과 傳播」,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 109-120.

48 姜龍洙, 앞의 논문, p. 24.

49 朴趾源, 『熱河日記』, 正祖4年(1780), 「盛京雜識」, 「粟齋筆談」, “……貴邦珍尙 亦異內地 嘗見賣買人 雖如干茶藥 不揀頂品 只取價廉 何論眞假 非但茶藥如此 諸般器物 爲其載重難輸 例於邊門買回 故京裏裨販 預收內地笨伯 轉輸邊門 互相騙詐 以爲機利…….”



도 19 京杭大運河

주를 거친다는 점은 앞서 사절단이 통주성 내에서 자기를 구입하였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아울러 주목할 만 한 점은 출토품 중 경덕진요, 덕화요, 나원요 등 남방 청화자기의 양식적 특징이 조선에서 출토된 예와 상당 유사하다는 점이다(도 20). 즉, 조선 유입 청대 청화자기를 비롯하여 옹주요 출토품과 같은 범람자기들은 해상무역을 통해 외수용으로 제작된 자기와는 달리 소위 내수시장의 취향에 의해 제작된 상품이 육로무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래 중국 내 소비를 위한 남쪽 생산 자기들은 운하를 거쳐 운송되었을 것이며, 최종 종착지는 북경이었다. 이 자기들은 다시 상인들에 의해 以北으로 옮겨지면서 유통이 확산되었을 것이고, 아울러 국경 근처에서 행해진 중

강개시, 중강후시, 책문후시를 찾은 조선 상인에게도 팔렸을 것이다. 덧붙여 개시와 후시를 통해 조선 상인이 구입한 자기는 『熱河日記』 중 북경상인들이 內地에서 쓰지 못할 물건들을 변문으로 넘겨 보낸다거나,⁵⁰ 19세기 간행된 서유구의 『林園經濟志』에도 여전히 책문보다는 연경의 자기 품질이 우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⁵¹ 품질이 좋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도 20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유적 출토 청대 청화자기, 중원문화재연구원

⁵⁰ 註49 上同.

⁵¹ 徐有棻, 『林園經濟志』, “華造瓷器……遼藩以東柵門近處貨者品劣, 燕京貨者品優…….”

기록과 출토상황에 근거하면, 내수시장을 위해서 운하를 통해 북상한 자기들은 품종과 품질에 따라 유통 지역이 달랐을 것이다. 법랑자기와 같은 고급자기는 중국 최대 시장이었던 북경 및 통주로 운송되었으며, 이곳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던 황인점과 같은 사절단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상인들이 개시나 후시에서 사들이는 대량생산 상품인 청화자기와는 달리 구입 장소를 포함하여 조선으로 유입되는 과정조차 달랐음을 의미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18세기 청대 법랑자기의 조선 유입 상황을 살펴보았다. 18세기 조선은 중국發로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에 직·간접 영향을 받으며 시시각각 변화되는 세계 도자문화 영향권에 있었다. 18세기 청대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자 주 무역 대상이었던 법랑자기가 당시 국제 도자문화에 크게 미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과연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우방적 관계에 있었던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에 본 연구는 18세기 중·후반 법랑자기가 조선에 막 소개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당시 청대 법랑자기의 제작 및 유통과 연계하여 조선으로 유입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18세기 조선에서는 황실전용 기물이었던 양채를 비롯하여 두 용주묘에서 출토된 민간제작 분채 역시 유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래 황실만을 위해 제작된 법랑자기는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민간에서 제작되어 유통되는 상품으로 그 사회적 위치가 전환되어갔다. 두 용주묘 출토품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화협용주묘 출토품은 최소 옹정년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는 법랑자기가 민간에서 제작되어 상품으로 막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이기에 사실상 조선은 당시 청나라 자기 문화를 거의 시간차 없이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랑자기들은 중국 내수시장을 위해서 운하로 이동되어 중국 시장의 핵심인 북경이나 통주로 운송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화유용주묘 출토품을 통해 이러한 법랑자기들은 연경 사행을 위해 북경이나 통주를 오갈 수 있었던 창성위 황인점 같은 특권층인 사신들에 의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이들이 제한적이거나 최고급 상품을 접하여 조선에 유입시킴으로서 18세기 후기에 시작된 세계적인 조류에 조선이 합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 사회에서의 법랑자기는 태생부터 그 위상이 여타 다른 자기와는 차별되는 특수한 위치였으며, 동시에 경제적인 財貨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사실상 소수의 유물을 통해 18세기 전체를 통찰한다는 것은 상당 어려운 일임과 동시에 여전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화협옹주묘 출토품과 같이 조선에 유입된 청대 법랑자기는 앞으로도 재차 발견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 근세 동아시아를 상대로 중국 법랑자기의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부분적으로 공백이었던 조선의 상황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미약하나마 향후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도자기 제작 발전 맥락의 통찰을 위한 초보적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 18세기 (eighteenth century), 법랑자기 (falancai porcelain), 양채 (yangcai), 분채 (fencai), 정조 (Jeongjo), 화협옹주 (Princess Hwahyeop), 화유옹주 (Princess Hwayu), 황인점, 청나라 (Qing Dynasty), 옹정제 (Yongzheng Emperor), 건륭제 (Qianlong Emperor), 청궁 (The Qing Court), 조판처(Palace Workshops), 경덕진 (Jingdezhen), 어요창 (The Imperial Kiln), 조청 도자교섭 (exchange of porcelains between Joseon and Qing), 무역도자 (traded ceramics), 외수자기 (porcelains produced for export)

■ 투고일 2016년 12월 6일 | 심사개시일 2016년 12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7년 1월 22일 ■

참고문헌

1. 한국사료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老稼齋燕行日記』, 金昌業.

『同文彙考』

『承政院日記』

『世宗實錄』

『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正祖實錄』

『燕行記』, 徐浩修.

『燕行錄』, 金正中.

『熱河日記』, 朴趾源.

『燕行記事』, 李岬.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英宗大王實錄廳儀軌』

『林園經濟志』, 徐有榘.

『日省錄』

『靑莊館全書』, 李德懋.

2. 중국사료

『旬雅』, 寂園叟.

『造辦各作成做活計清檔』

3. 한국어문헌

姜龍洙, 「朝鮮時代 對淸貿易에 관한 研究」, 『산업경제연구』9권, 1996. 8.

국립대구박물관, 『우리문화속의 중국도자기』, 2004.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2014.

- 공중유물전시관, 『오얏꽃 황실생활유물』, 1997.
- 고궁박물관, 『조선왕실 공주와 왕비의 생활-2012년도 국립고궁박물관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2.
- _____, 『조선왕실 왕비와 후궁의 생활-2013년도 국립고궁박물관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3.
- 김미경,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清代 磁器의 影響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미성, 「조선후기 貢契의 등장과 도고상업-折草塵·燻造契·靑藍契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은경, 「淸 雍正時期 洋彩의 含意와 그 特徵」, 『美術史學』第28號, 2014. 8.
- 김중수, 「규장각 소장 연향 관련 儀軌 고찰」, 『한국학보』 29권 4호, 2003.
- 김지연, 「『화순옹주가례등록(和順翁主嘉禮謄錄)』에 나타난 가례 절차와 물품 연구」, 『服飾』 65권 3호, 2015. 4.
- 明在淑, 「李朝 後期 貢人階層에 對하여」, 『綠友研究論集』 16호, 1974.
-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 방병선,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美術史學研究』 第232號, 2001. 12.
- _____, 「淸亭 朴齊家·繪菴 李喜經의 도자 인식」, 『美術史學研究』 第237·238號, 2003. 9.
- _____, 「조선 후반기 도자의 대외교섭」,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 교섭』, 예경, 2007.
- 심승구, 「영조 딸들의 혼례 특징과 『옹주가례등록』의 가치」, 『한국학논총』 43권, 2015.
- 이기경著, 이순구外譯, 『1756년의 북경이야기 : 이기경의 음빙행정력』, 교육과학사, 2016.
- 李迎春, 「木山 李基敬의 燕行錄 『飲氷行程曆』」, 『한중인문학연구』 44권, 2014. 8.
- 이종민, 「한반도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유형과 의미」, 『中央史論』 第35輯, 2012. 6.
- 이철성, 「연행(燕行)의 문화사-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한국실학연구』 20권, 2010.
- 이현진, 「영조대 왕실 상장례(喪葬禮)의 정비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한국사상사학회』 37권, 2011.
- _____, 「정조대 文孝世子の 喪葬 의례와 그 특징」, 『규장각』 40권, 2012. 6.
- _____, 「영조대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예장(禮葬)과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46권, 2014.
- 임민혁, 「조선후기 공주와 왕주, 군주의 가례(嘉禮) 비교 연구」, 『濫知論叢』 33권, 2013.
- 장남원, 「朝鮮後期 李圭景의 陶磁認識 - 『五洲衍文長箋散稿』의 「古今瓷窯辨證說」과 「華東陶瓷辨證說」을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第6號, 1998. 3.
- 장호진,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流行과 傳播」,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鄭權泳, 「朝鮮後期 貢人의 權利와 義務」, 『教育論叢』 3권 2호, 1987.

4. 동양어문헌

- 尾野善裕, 『魅惑の淸朝陶磁』, 大阪: 読売新聞社, 2013.
- 北京市文物研究所, 『圓明園長春園宮門區遺址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2009.
- 孫錦泉, 「清代華瓷在歐洲市場的變故和國內的偽制之風」, 『社會科學研究』 第6期, 2012.

- 施靜菲,「十八世紀東西交流的見證—清宮畫琺瑯工藝在康熙朝的建立」,『故宮學術季刊』第24集 第3期, 2007.
- _____,『日月光華—清宮畫琺瑯』,臺北:故宮博物院, 2013.
- 施靜菲·彭盈真,「從文化脈絡探討清代釉上彩名詞—琺瑯彩·洋彩與粉彩」,『故宮學術季刊』第29卷 第4期, 2012.
- 施靜菲·與王崇,「乾隆朝粵海關成做之〈廣琺瑯〉」,『國立臺灣大學美術史研究集刊』第36期, 2013.
- 吳兆清,「清代造辦處的機構和匠役」,『歷史檔案』第4期, 1991.
- 王光堯,「內外作坊一體化—雍正朝琺瑯瓷器生產之變」,『紫禁城』第10期, 2009.
- 余張紅,「十八世紀晚期至十九世紀中期華瓷外銷」,『中國陶瓷工業』第4期, 2011.
- 余佩瑾,「唐英與雍乾之際官窯的關係—以清宮琺瑯彩瓷的繪製與燒造為例」,『故宮學術季刊』第24卷 第1期, 2006.
- _____,「匠外之作—從唐英《陶成紀事碑》看雍正官窯燒造及帝王品味的問題」,『雍正:清世宗文物大展』, 2009.
- 廖寶秀,『華麗彩瓷—乾隆洋彩』,臺北:國立故宮博物院, 2008.
- 陸明華,「見證東西洋—明清貿易瓷相關研究」,『故宮博物院·上海博物館藏明清貿易瓷』,上海:上海書畫出版社, 2015.
- 張福康,「中國傳統低溫色釉和釉上彩」,『中國古代陶瓷科學技術成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 周思中,『清宮瓷胎畫琺瑯研究(1716-1789)』,北京:文物出版社, 2008.
- _____,「圓明園琺瑯作與清瓷胎畫琺瑯的制作及風格考」,『圓明園學刊』第11期, 2015.
- 周思中·易小英,「清宮瓷胎畫琺瑯的名稱沿革與燒造時間、地點考」,『陶瓷學報』第1期, 2010.
- Rose Kerr, Luisa E. Mengoni, 張淳淳譯,『中國外銷瓷』,上海:藝術與鑒藏, 2013.

5. 서양어문헌

- Gillingham, Michael. *Chinese Painted Enamels*, Oxford: Ashmolean Museum, 1978.
- Kerr, Rose, *Chinese Ceramics: Porcelain of the Qing Dynasty 1644-1911*,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86.
- Kerr, Rose and Luisa E. Mengoni. *Chinese Export Ceramics*,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2011.
- Rooney, Dawn F. *Bencharong: Royal Thai Porcelain*, Bangkok: River Books, 2011.

국문초록

118세기 영·정조 시대의 조선은 청나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여러 방향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특히 이 시기 북학파에 의해 청나라를 인정하고 청나라의 학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바램은 조선 사회의 도자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청대 도자 공예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성장한 소위 법랑채라 불리는 법랑자기는 청 왕조의 적극적 주도 하에 생산 발전된 주력 품목이었다. 이 법랑자기는 18세기 조선에 처음 소개되는 시기로 현재 일부 출토품과 전세품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명 일정 수량의 법랑자기가 수입되어 소비되었을 조선의 상황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조선에 막 소개되기 시작한 18세기의 상황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18세기 조선에 유입된 법랑자기는 문헌을 통해 건륭년간(1723-1795) 황제에 의해 「洋磁玳瑁」이 3차례 하사된 기록이 있으며,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견된 사도세자의 누이인 화협옹주(1731-1752)묘 및 화유옹주(1741-1777)묘에서도 각 1점씩 18세기 중·후반경에 제작된 법랑자기가 출토된 바 있다. 문헌기록 속의 洋磁玳瑁은 오늘날의 양채자기로 청 황실 어용자기였다. 그러나 옹주묘에서 출토된 법랑자기들은 민가에서 제작된 민요 법랑자기로 추정되며, 그 유입과정 역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18세기 유물인 옹주묘 출토품을 통해 당시 조선으로의 유입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황실 공예였던 법랑자기는 18세기 중반 이후 상류층을 위한 고급상품에서 일반상품으로 사회적 위치가 전환되었다. 그 결과 민요에서 제작된 법랑자기는 중국 내수시장을 위해 경덕진에서 운하를 통해 중국 시장의 핵심인 북경이나 통주 등지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연경사행을 통해 북경이나 통주를 오갈 수 있었던 창성위 황인점 같은 특권층인 사신들은 제한적이거나 최고급 상품을 접하여 조선에 유입시킨 것으로서 18세기 후기에 시작된 세계적인 조류에 조선이 합류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Falangcai* Porcelain Introduced to Joseon during the 18th Century

Kim Eun Kyoung*

There were active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China in the reign of Yeongjo and Jeongjo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me established. Especially, the School of Northern Learning, which not only acknowledged the Qing Dynasty but also intended to learn from its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 improve Joseon society, affected the porcelains circulated in Joseon. One of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s in pottery during the Qing Dynasty was *falangcai* porcelain, which was invented and produc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Qing court. These *falangcai* porcelains were first introduced to Joseon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and this is verified by the examples that have been excavated or transmitted in Korea.

This article analyzes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a certain number of *falangcai* porcelains were imported to and consumed in Joseon, especially the circumstances of the eighteenth-century, under which *falangcai* porcelains just began to be introduced to Joseon. It is recorded that Emperor Qianlong (1723-1795) bestowed “Yangci falang (洋磁瑱瑯)” on the royal court of Joseon three times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A piece of *falangcai* porcelain produced in the mid- and late- eighteenth century was excavated both in the tomb of Prince

* Korea University

Sado's sister, Princess Hwahyeop (1731-1752), which was recently discovered in Namyang-ju, Gyeonggi Province, and in the tomb of Princess Hwayu (1741-1777). The so-called "Yangci falang (洋磁瑱瑯)," which are currently categorized as Yangcai porcelains (洋彩瓷器), were imperial porcelains of the Qing court. However, the falangcai porcelains found in the tombs of the two princesses were probably produced in Jingdezhen folk kilns, though it had not been studied how they were transmitted to Joseo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falangcai porcelains were brought into Joseon focusing on the examples from the tombs of the two princesses.

Falangcai porcelain, which had originally been made for the royal household, became produced for commoners after the mid-eighteenth century. As a result, *falangcai* porcelains produced for Chinese domestic consumption in Jingdezhen folk kilns were transported to the largest markets in China including Beijing and Tongzhou along the canal. The Joseon envoys privileged to travel to Beijing and Tongzhou such as Chang Seong Wi(昌城尉) Hwang In jeom had access to the finest *falangcai* porcelains of China and introduced them to Joseon, joining Joseon in the global trend of producing and consuming *falancai* porcelains, which had begun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